

尹, 이틀간 17개국 만났다… 부산엑스포 유치 외교전 총력

뉴욕순방 2일차 8개국과 양자회담
코트디부아르·모나코·수리남 등
정상회담 마다 부산 홍보책자 건네

카자흐에 원전건설 등 협력 촉진
우즈벡과 핵심광물 공급망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 이틀차에 8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소화하면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의 유치 배경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하는 등 외교 총력전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이틀간 17개국 정상을 만나는 강행군을 소화하고 있다.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코트디부아르·가나·모나코·수리남·레소토·벨리즈·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정상과 회담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각국 정상과 만나 '경쟁에서 연대로 전환'되는 부산 엑스포의 키워드를 설명하며 유치전에 총력을 다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부산 엑스포 홍보 책자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또한 각국 정상에게 "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개 이상의 대형 항구와 두 개의 공항, 그리고 반경 100km 이내에 세계 최고의 자동차 공장, 석유화학, 제철, 조선, 방위, 디지털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부산은 앞으로 그 어떠한 곳보다 많은 방문객을 유치해 참가국들이 원하는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강

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 부산 엑스포를 참가국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솔루션 플랫폼으로 명명했듯이, 윤 대통령은 "여러분 국가의 미래를 대한민국이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70여년 전 거의 모든 국도가 유린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기적적으로 전세를 역전시키며 자유를 지켜내고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냈다"면서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땀줄과도 같은 역할을 한 도시가 부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수물자와 유엔군 지원 병력이 부산을 통해 속속 들어왔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국가 성장이라는 희망을 견인한 이 수출입 항구로 인해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라는 기적을 만들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부산이 없었으면 오늘과 같은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도시, 전 세계에서 받은 도움을 이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와 연대로 보답하겠다는 대한민국 대외정책 기조를 부산이 상징하는 것"이라며 "부산 엑스포의 키워드는 그래서 '경쟁에서 연대로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이에 따라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연대하고 단결해야 한다는 우리 국가 대외정책의 방향을 부산을 통해 설명하고 역설할 예정"이라며 유엔 순

방 일정 마지막까지 윤 대통령이 열띤 유치전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한편, 이날 릴레이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주요국과 경제협력 강화와 핵심 광물 공급망 등 경제안보에서의 협력 확대에 주안점을 뒀다.

윤 대통령은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서 원전 건설, 핵심광물 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고, 한국 기업이 카자흐스탄 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정부 측의 지원을 당부했다. 키شم-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에서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소재 등 자원이 풍부한 우즈베키스탄과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핵심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자"면서 현재 추진 중인 '희소금속 상용화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당부했다. 사브카트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한국 기업의 지속적 참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고 답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국제유가 상승에 생산자물가 0.9% 급증

한은, 8월 생산자물가지수
공산품 전월비 1%, 석탄·석유 11% ↑
농림축산품 7.3% 7년만에 최대폭

지난달 우리나라 생산자물가가 1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크게 오르고 집중호우 및 폭염으로 농산물 값이 치솟은 영향이다.

생산자물가는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9월 물가도 3% 수준으로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3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1.16으로 한달전과 비교해 0.9% 상승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 7월 상승세로 전환한 뒤 2개월 연속 올랐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생산자가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통계지표로, 소비

자물가지수와 약 한달간의 시차를 가진다.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또 다시 오르면서 소비자물가도 3%대를 유지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올해 8월 생산자물가지수 중 공산품은 전월 대비 1.1% 상승했다. 이 가운데 국제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석탄 및 석유제품은 11.3%, 화학제품은 1.4% 올랐다. 반면 제1차금속제품은 -0.3% 하락했다.

농림축산품도 전월 대비 7.3% 상승했다. 2018년 8월 8% 증가한 이후 최고 수치다. 농산물은 한달 전과 비교해 13.5%, 축산물은 1.5% 올랐다.

유성용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반면 수산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우려가 커졌음에도 변동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산품은 2013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오염수가 유출돼 8월

부터 12월까지 수산물 가격이 하락한 바 있다.

서비스물가는 운송서비스(0.8%)와 음식·숙박서비스(0.4%) 등이 상승해 0.3% 올랐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보다 1.4% 상승했다.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 물가가 각각 5.1%, 0.9%, 1.2%씩 올랐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8월 총산출물가지수는 7월보다 1.6% 상승했다.

공산품(2.1%), 농림수산물(7.1%), 서비스(0.3%) 등이 올랐다.

유 팀장은 9월 생산자물가지수 전망에 대해 "국제유가 오름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수에 다양한 품목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지수 수준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지방대 70% 사실상 '수시 미달' 수험생 '인 서울' 쏠림 더 심화

서울권 42개 대학 경쟁률 17.79대 1
지방권도 경북대 등 거점국립대 집중

수험생들의 '인 서울'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권 대학의 2024학년도 수시 평균 경쟁률은 17.79대 1로 지난 4년 사이 최고 경쟁률을 보인 반면, 지방권 대학 116곳은 5.49대 1에 그치며 같은 기간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지방대 82곳은 경쟁률 6대 1에 미치지 못하며 '사실상 미달'인 상태다.

2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 소재 42개 대학의 수시 경쟁률은 17.79대 1로 최근 4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권 대학의 수시 경쟁률은 ▲2021학년도 14.67대 1 ▲2022학년도 16.01대 1 ▲2023학년도 16.85대 1로 매년 올랐다.

올해 경쟁률 상위 10개 대학은 ▲중앙대(33.62대 1) ▲성균관대(30.70대 1) ▲서강대(29.69대 1) ▲경희대(27.43대 1) ▲한양대(26.52대 1) ▲건국대(25.83대 1) ▲동국대(23.87대 1) ▲가천대(글로벌)(21.86대 1) ▲아주대(21.34대 1) ▲한국외대(20.20대 1) 등 모두 수도권 대학이다.

반면 지방 대학 수시 평균 경쟁률은 최근 4년간 ▲2021학년도(5.69대 1) ▲2022학년도(6.06대 1) ▲2023학년도(5.77대 1) ▲5.49대 1(2024학년도) 등으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특히 올해는 대학 102곳이 경쟁률 6대 1을 밑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방권 4년제 대학은 82곳으

로, 전체 지방대 116곳의 70%에 달했다. 지방대학 10곳 중 7곳은 사실상 정원보다 지원자가 적은 셈이다. 대학 수시모집은 수험생이 총 6번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쟁률이 6대 1보다 낮은 경우 실제 정원을 채우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권 경쟁률 상위권 대학도 경북대, 부산대 등 상위권 지방거점국립대나, 연세대 미래캠퍼스, 고려대 세종캠퍼스 등 상위권 대학 지방 캠퍼스로 집중화하는 모양새다. 지방 소재 대학 중 경쟁률이 높은 상위 10곳은 ▲경북대(13.97대 1) ▲부산대(10.49대 1) ▲연세대(미래)(9.61대 1) ▲상명대(천안)(8.84대 1) ▲단국대(천안)(8.83대 1) ▲고려대(세종)(8.71대 1) ▲충남대(8.60대 1) ▲충북대(8.59대 1) ▲건국대(글로벌)(8.46대 1) ▲한국기술교육대(7.93대 1) 등이다.

수도권 대학에서는 17곳이, 서울권에서는 7곳의 대학이 6대 1이 경쟁률을 넘지 못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권 소재 대학으로 더 집중화되는 양상"이라며 "2024학년도 기준 수시 선발비율이 지방권 88.1%, 수도권 69.8%, 서울권 60.1%로 매우 불균형적이고, 지방권 소재 대학에서 수시 비중을 아무리 확대해도 개선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대표는 "(지방권 대학은) 수시 미충원, 이월로 인한 정시 모집규모 확대, 정시 모집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현진 기자 lhj@

“인수전 소문 IB서 흘러… 새 회계제도 거품 걷어내야”

» 1면 '소문만 무성한 금융지주'서 계속

5대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보험사와 증권사가 없는 우리금융도 보험사 인수에 관심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직접 보험사 인수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다.

하나금융 역시 KDB생명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최근 인수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 속 KDB생명 매각가의

10배가 넘는 롯데손보 인수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금융지주가 인수전에 참여할 것이란 소문은 IB시장에서 흘러보내는 것”이라며 “정작 금융지주들은 현재까지 인수할 마음이 없으며 새로운 회계기준 거품이 없어지는 것을 봐야지 보험사 실적을 정확히 알 수 있어 현재로는 인수 의향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서울 중구 롯데손해보험 본사. /롯데손해보험